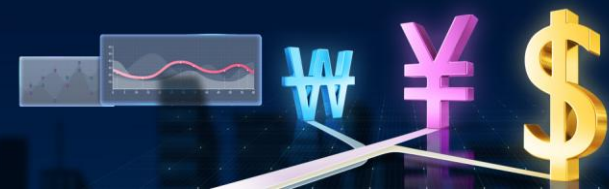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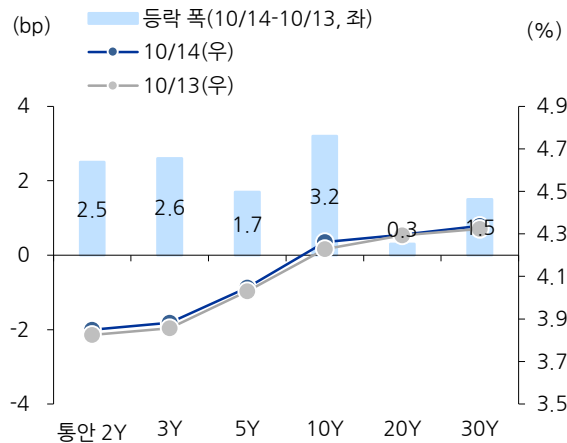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FX 차영후_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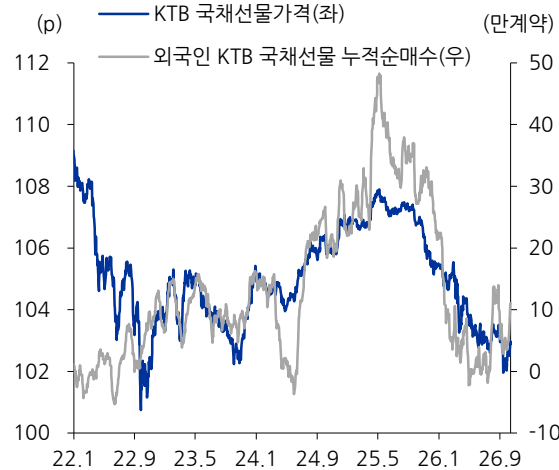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10/14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883%	2.6	-5.0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261%	3.2	-10.8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37.8	37.2	43.6
해외 채권	3년 국채 선물(KTB)	102.88	-10.0	25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05.74	-30.0	106.0
	미국채 2년물	4.801%	0.8	0.2
	미국채 10년물	5.188%	-2.3	-9.5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38.7	41.8	48.3
	독일국채 10년물	3.476%	0.5	-0.8
	호주국채 10년물	5.314%	2.6	-9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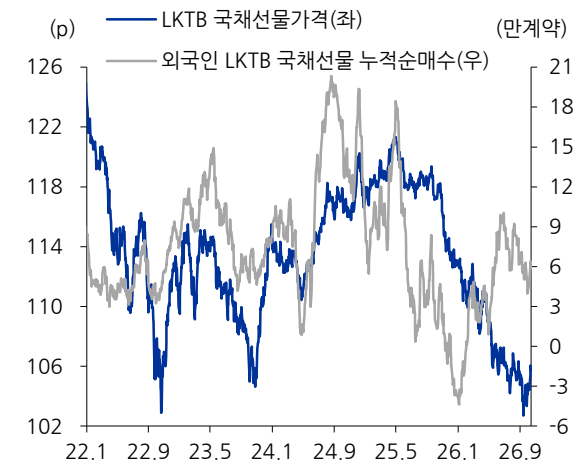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 미국 CPI 대기모드.
- 최근 급격한 강세 이후 숨고르기 및 국제유가 상승, 아시아 장 중 미국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금리 상승 출발.
- 이후 신현송 총재의 통화정책 필요성 발언과 9월 CPI를 앞둔 경계심 등 혼재되며 약세 지속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혼조 보이며 커브 플래트닝 마감.
- 오전 미국 9월 CPI 발표 후 금리 급등. 근원물가 전월비가 0.3%로 예상치 0.2%를 상회했고 근원 서비스물가 상승이 컸다는 해석 영향.
- 장중 2년 금리 10bp 이상 급등했고 10년 금리 5.3% 상회하기도 함. 이후 저가매수 유입 등 금리 상승폭 되돌리며 마감.

자료 출처: 연한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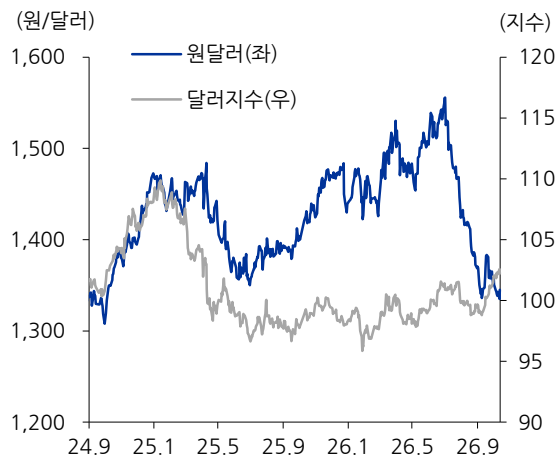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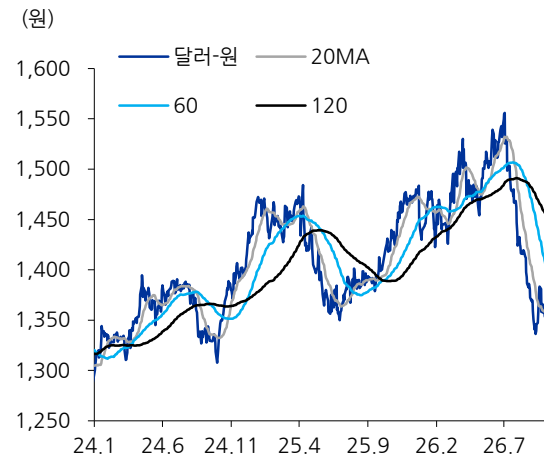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	10/14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38.30	-0.5%	-0.2%	-7.0%
	달러지수	102.53	0.3%	0.2%	4.3%
	달러/유로	1.12	-0.4%	-0.4%	-5.0%
	위안/달러(역외)	6.70	0.0%	-0.1%	-4.1%
	엔/달러	158.28	0.0%	0.1%	1.0%
	달러/파운드	1.32	-0.5%	-0.2%	-2.0%
	헤알/달러	5.03	0.2%	0.2%	-8.9%
상품	WTI 근월물(\$)	95.17	1.1%	7.8%	65.7%
	금 현물(\$)	4,112.57	-1.2%	0.0%	-4.8%
	비트코인(\$)	81,785	-1.9%	-2.2%	-6.9%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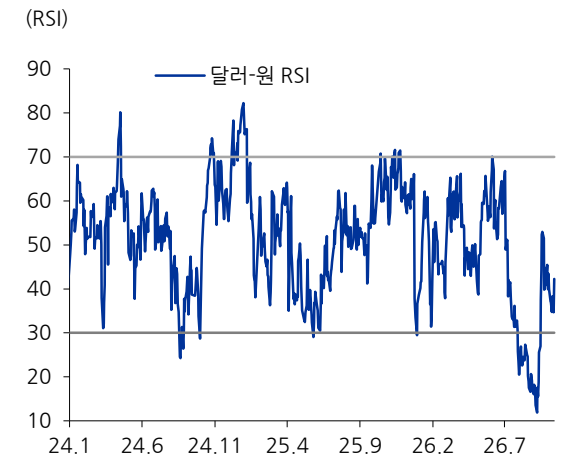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수출기업 달러 매도에 6.80원 하락한 1,338.30원에 마감(야간 1,342.30원)
-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주식 순매도 이어졌음에도(코스피 7거래일 연속, 총 14.3조원 순매도),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은 하락.
- 달러-원은 예상을 웃돈 美 CPI 소화하며 야간거래에서 +4.00원 상승. 후티 반군의 사우디 아람코 본사 공격 소식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또한 원달러 상승을 지지.
- 글로벌 달러 강세에 더해 아시아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도체 투매가 이어질 경우 달러-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. 다만 수출기업 달러 매도가 원달러 환율 상단을 제한하고 있어 상단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전망.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美 9월 소비자물가 예상 상회에 상승(DXY +0.3%).
- 美 9월 CPI는 +0.6% mom·+3.7% yoy 상승, 근원 CPI는 +0.3% mom·2.6% yoy 상승해 예상을 상회. 달러는 CPI 발표 직후 美 국채금리와 함께 급등했으나, 위험회피에 금리가 하락하면서 달러 상승폭은 일부 축소됨.
- 헤드라인 물가 급등은 에너지가 주도했으나 근원 상품이 전월비 +0.3%(8월 +0.1%), 근원 서비스가 +0.4%(8월 +0.3%) 오르며 에너지 외 품목으로의 인플레이 확산 우려 높아짐. 주거비 또한 +0.4% 상승.
- 美 CPI 발표 이후 시장에 반영된 연준의 10월 인상 가능성은 33%까지 상승(발표 전 22%). 프랑스 재정·정치 불안이 이어지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, 美 물가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당분간 달러 강세 이어질 전망.